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26년 9월 7일(월)

관련자료: 사진자료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론스타 르망 레이스 톱10 올라

- FIA WEC 5 라운드 '론스타 르망'에서 시즌 최고 성적인 7 위 기록·두 번째 포인트 피니시 달성
- 미국 서킷 오브 디 아메리카스에서 펼쳐진 북미 첫 레이스서 경쟁력과 신뢰성 입증
- GMR-001 하이퍼카 2 대 모두 완주 성공·#17 차량 7 위로 WEC 출전 이래 최고 성적
- 여름 휴식기 동안 진행한 테스트 및 개선 작업 성과 바탕으로 안정적인 레이스 운영
- 다음 라운드인 일본 '후지 6 시간' 레이스서 시즌 후반기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기대

제네시스는 소속 레이싱팀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 현지시간 6일(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 서킷 오브 디 아메리카스(Circuit of the Americas, COTA)에서 열린 FIA(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국제 자동차연맹)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World Endurance Championship, WEC) 5라운드 '론스타 르망(Lone Star Le Mans)'에서 톱10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6시간 동안 펼쳐진 치열한 경기 끝에 GMR-001 하이퍼카 #17 차량이 7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포인트를 획득하며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의 WEC 출전 이래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GMR-001 하이퍼카 #19 차량은 15위로 경기를 마쳤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이번 대회에서 안정적인 레이스 운영과 향상된 주행 능력을 바탕으로 시즌 두 번째 포인트 피니시를 달성했다.



PRESS RELEASE

특히 지난 7월 동일한 서킷에서 진행한 사전 테스트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차량 셋업과 타이어 전략에 적극 활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온 환경에서의 대응 능력과 주행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올 시즌 르망 24시간과 상파울루 6시간 레이스를 거치며 축적한 경험을 이번 경기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상파울루 라운드 이후에는 운영 효율성과 레이스 실행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며 경기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경기의 무대가 된 COTA는 고속 코너와 강한 제동 구간, 거친 노면이 혼재된 FIA WEC 캘린더 내 대표적인 고난도 서킷 중 하나다. 특히 높은 기온과 노면 온도로 인해 타이어 관리가 경기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까다로운 주행 환경 속에서도 두 대의 GMR-001 하이퍼카는 경기 내내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며 완주에 성공했다. 특히 두 차량 모두 선두 차량과 동일 랩(Lead Lap)으로 경기를 마치며 경쟁력을 입증했고, 기계적 문제없이 레이스를 완주하며 신뢰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팀은 북미에서 처음 치른 WEC 경기에서 포인트를 획득하며 남은 시즌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이번 경기는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 FIA WEC 출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치른 레이스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미국은 제네시스의 주요 글로벌 시장인 동시에 GMR-001 하이퍼카 풀 스케일 모델을 최초로 공개한 곳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북미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제네시스 마그마의 존재감을 확대하고 브랜드와의 접점을 넓혔다.



PRESS RELEASE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총감독 시릴 아비테볼(Cyril Abiteboul)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우리는 극한의 조건에서도 상파울루에서 보여준 신뢰성을 재현하고, 두 대의 차량 모두 선두 차량과 동일 랩으로 완주하며 포인트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은 팀의 발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7위는 FIA WEC 데뷔 이후 팀이 거둔 최고 성적”이라며 “이번 레이스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경기에서도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이시혁 전무는 “론스타 르망 레이스에서의 포인트 획득은 글로벌 모터스포츠 무대에서 제네시스의 경쟁력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모터스포츠를 통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이번 론스타 르망에서 확보한 데이터와 경험을 활용해 차량 성능과 운영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어 이번 달 27 일(일) 일본 후지 스피드웨이(Fuji Speedway)에서 열리는 FIA WEC 6 라운드 ‘후지 6 시간 레이스(6 Hours of Fuji)’에 출전해 시즌 후반기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끝]

<사진설명>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론스타 르망 레이스 톱10 올라

제네시스는 소속 레이싱팀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 현지시간 6일(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 서킷 오브 디 아메리카스(Circuit of the Americas, COTA)에서



PRESS RELEASE

열린 FIA(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국제 자동차연맹)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World Endurance Championship, WEC) 5라운드 ‘론스타 르망(Lone Star Le Mans)’에서 톱10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1~3)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론스타 르망 레이스 톱10 올라